

'흑백요리사 시즌2'에 '네 평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김 셰프를 만나 처음 요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들어봤다.



올해 다전공 의무화를 앞두고 학교는 온라인 강의 확대를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현장에선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 대학주보



의상학과 졸업작품 가봉 전시회 'THE WHITE PROJECT : BEYOND HUMAN'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1일까지, 서울숲 인근 GG2 갤러리에서 의상학과 졸업작품 가봉 전시회 'THE WHITE PROJECT : BEYOND HUMAN'가 열렸다. 공통 주제는 '포스트휴먼니즘'이었다. 최초로 외부에서 진행된 가봉 전시회였으며, 외부업체와 체결한 모슬린을 이용해 만든 옷들을 8개 그룹이 팀별로 전시했다. 졸업전시 준비위원장 유상훈(의상학 2021) 씨는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홍지우 기자)

## 자유전공 42.7% 전자공학과로 특정학과 선호 현상 뚜렷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2025년 자유전공학부 신설 이후 초대 진입 전공 배정이 마무리됐다. 전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102명으로, 학부 인원의 약 42.7%를 차지했다. 학부 내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한 학생들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학년 진급 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을 신청하여, 포스트모던음악학과를 제외한 국제캠 내 모든 학부·학과·전공 중 한 곳으로 진입 가능하다.

전공 선택 결과는 ▲전자공학과 102명 ▲생체의공학과 3명 ▲반도체공학과 2명 ▲화학공학과 35명 ▲기계공학과 7명 ▲산업경영공학과 4명 ▲신소재공학과 2명 ▲컴퓨터공학과 16명 ▲인공지능학과 7명 ▲소프트웨어융합학과 5명 ▲유전생명공학과 11명 ▲응용수학과 2명 ▲응용물리학과 1명 ▲응용화학과 1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을 기준으로는 ▲전자정보대학 107명 ▲공과대학 48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8명 ▲생명과학대학 11명 ▲응용과학대학 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퇴생 2명, 휴학생 포함 미선택자 40명을 제외한 결과다. 실질적 전공 선택 인원 199명 중 107명이 전자정보대학 내 학과로의 진학을 선택하며 약 53%의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전공학부 배재형 학부장은 "이전에는 유망한 분야로 기계나 컴퓨터 쪽이 꼽혔는데,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반도체나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전정대 쪽 선호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100이라는 수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자유전공학부 TO 확보를 위해 전정대·소융대 쪽 모집인원이 9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인원은 3,4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최종 결과 이전부터 1, 2, 3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과대학과 소통해왔다. 배 학부장은 "각 단과대학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유입에 따라 교원 수나 강의실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유입 규모를 공유해왔다"며 "전정대에서는 강의실도 확보한 것 같고 강의 수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학과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학부의 전공탐색 과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 학부장은 "2025학년도 1학기 무렵 1차 사전 설문조사 당시에는 외국어대, 국제대, 예술디자인대, 체대까지 수가 적기는 해도, 학생들이 거의 모든 단과대에 분포해 있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단과대를 선택한 학생들은 없게 됐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여러 커리큘럼을 겪어보고 고민하며 도출한 탐색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학부장은 "학생들이 사회 전반의 흐름에 따라 진입 전공을 선택하는 큰 경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1, 2, 3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부터 현재 최종 결과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 왔다는 것은 자유전공학부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했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유권해석 논의 끝 전임 총학생회장 비대위장으로 선출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박병준(국제학 2017) 전 총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으로 선출됐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전 총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학생자치 공백을 우려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제캠 비대위장 선출은 해당 연도 중운위 구성원 중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제캠은 재작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임기연장 조항이 삭제된 후 전년도 회장단이 중운위와 단운위에 비대위로서 참여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서울캠은 총학생회칙 제39조에 따라 중운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설립위원회를 꾸린 뒤 간선 투표를 통해 황희원(응용통번역학 2024) 문과대학 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했다.

국제캠 논의의 핵심은 전임 총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호선하는 것의 가능 여부였다. 2년 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전임 총학생회장단 또는 전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을 임기 연장 방식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정이 임기 연장만을 제한한 것인지, 전임 회장단의 비대위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자체까지 금지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유권해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임 회장단의 비대위 참여 범위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1차 긴급 중운위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전임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을 해당 연도의 총학생회 비대위장으로, 전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을 해당 연

도의 단과대학 비대위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이라는 안건이 중운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 전반에 적용될 경우 운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성운(국제학 2021) 국제대학 회장은 "회칙 상 호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자치 운영 경험이 없는 인물이 단과대학 비대위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대학은 단일 학과로 구성돼 있어, 회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자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이후 열린 제3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총학생회칙 92조 1항인 '해당 연도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이 비대위장이 된다'에 대한 해석이 다시 논의됐다. 논의 끝에 전임 총학생회장의 비대위장 선임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임 학생회장단 중 1인을 비대위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1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반대표를, 3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외국어대학 윤동현(중국어학 2022) 학생회장은 "세칙상 전임 학생회장이 비대위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첫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다만 국제대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학생회장도 비대위 체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칙 91조 5항에 따라 내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총학생회가 출범하는 시점까지다. 보궐선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 체제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